

출산율 끝까지 고흥군 '눈물 겨운' 인구 늘리기

<전남 22개 시군 중>

출산 장려·보육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추진... 앱 서비스도

출산장려금·지역학생 장학금 늘리고 다자녀 가구 각종 혜택

고흥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 자료에서 30년 내 사라질 위험이 84개 시·군 중 두번째로 높았다.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지난 2015년 기준 1.09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낮다.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38.1%(2만5545명)로 전남 지역에서 가장 높다. 전체 인구(6만7114명)도 지난 2010년(7만3924명) 이후 매년 급감하고 있다.

고흥군은 이같은 위기의식에 따라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고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마련, 추진 중이다.

목표도 소박한 듯 하다. '합계출산율 1.205명'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2015년 기준 전남 22개 시·군 중 21번째인 정흥(1.204)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끝까지 한 단계 높여보자는 소박한(?) 목표인 듯 보이지만 각종 정책에도 급감하는 인구를 감안하면 녹록치 않은 과제다.

고흥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혼·출산 인식 변화 ▲출산 장려 지원 확대 ▲보육·교육 환경 개선 ▲인구 유입 환경 조성 등 4가지 추진 전략을 세우고 전략별 추진목표를 정해 부서별 추진 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분위기를 바꿔라! =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장려 문화를 홍보하자는 취지로 60만원의 들여 '가족출산 모바일 앱 서비스'를 구축하는가 하면,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정책 홍보도 펼치고 있다.

만 3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육아공무원'의 경우 상·하반기 정기인사에서 '희망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커피매니저' 역할도 맡아 지역 내 미혼남녀 30명을 연결해주는 '청춘스캔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장려 모바일 앱 서비스인 '고흥 아

사람'은 임신·출산의 주 연령층이면서 스마트폰 세대인 젊은 층에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임신·출산·양육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애주기별·대상자별·소득별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사업 담당자와 바로 전화 연결할 수 있어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가 가능하며, 홍보 알리고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돼 있다.

◇풍성한 혜택은 기본! = 출산장려금도 확대했다. 첫째 아이의 경우 24만원, 둘째 48만원, 셋째 72만원을 주고 넷째부터는 144만원을 준다. 임신부에게 출산 축하용품인 마더박스(내의·속싸개 등 7종)를 제공하고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수영장·체육센터·발영산 자연휴양림·우주과학관 등 지역 공공시설 이용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기 시작했다. 공연 관람료를 면제해주는가 하면, 지역 음식점과도 협약을 맺어 임신부와 다자녀 가족들에 대해서는 할인토록 할 계획이다. 결혼 예정 부부들의 건강검진비도 무료로 제공한다.

◇환경을 고쳐라! = 보육·교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교생까지 지원했던 장학금을 지역 대학생에게도 지원하고 3세 이하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체계적 양육법을 제공하는 '오감특수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보 엄마들을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 출산 정보와 육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 회관에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고흥은 아울러 인구 유입책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무인기(드론) 기업을 유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과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고흥=주각종기자 gju@

■ 시·군별 합계출산율 <단위:명>

구분	2014년	2015년
전남	1.497	1.549
목포시	1.261	1.304
여수시	1.381	1.55
순천시	1.261	1.34
나주시	1.486	1.639
광양시	1.809	1.835
담양군	1.692	1.599
곡성군	1.347	1.437
구례군	1.449	1.57
고흥군	1.101	1.091
보성군	1.737	1.7
화순군	1.274	1.219
장흥군	1.283	1.204
강진군	1.921	1.755
해남군	2.433	2.464
영암군	2.002	2.107
무안군	1.446	1.444
함평군	1.954	1.63
영광군	1.674	1.652
장성군	1.825	2.101
완도군	1.902	1.767
진도군	1.663	1.697
신안군	1.651	1.539



고흥 출산 모바일 앱 서비스.



고흥군은 거리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저출산 대응 계획을 마련, 추진 중이다. <고흥군 제공>



어린이들이 새꼬막 채묘 등에 쓰고 버려진 폐자재를 수거해 정리하고 있다. 보성군은 여자만 일대 폐자재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 중이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새꼬막 채묘 폐자재 투기 집중단속

보성군이 새꼬막 채묘 폐자재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매년 여자만 일대에서는 새꼬막 채묘가 끝난 뒤 채묘에 사용한 폐꼬막과 대나무 지주대를 해상에 불법 투기해 해양오염 및 어선항해, 어로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 군은 여수, 순천, 고흥 등과 공동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보성군은 벌교읍 장암리(취별교꼬막 선착장)에 새꼬막 채묘 폐자재 보관 장소를 확보, 불법투기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보성군은 또 채묘관련 허가자, 어선 선주, 어업인 등에 적극적인 사전 홍보 및 지도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청정한 해양환경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 불법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곡성군 서울서 지역 먹거리 홍보 행사

곡성군이 수도권에서 지역 친환경 쌀 먹거리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다.

곡성군은 최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쌀도 취향에 맞게 골라먹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곡성의 농산물로 지어낸 음식을 제공,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서는 석곡농협 백세미, 육과농협 신동진, 미실란 발아현미, 동막영농조합법인 오색미 등이 소개됐고 전국 재배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곡성토란으로

만든 토란빵, 토란스낵 등도 전시됐다.

또 '기차타고 멜론마을'로 유명한 곡성멜론으로 만든 장아찌, 석곡흑돼지 고추장볶음, 곡성막걸리 등 곡성을 알릴 수 있는 농산물로 밥상을 차려 참석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석곡농협 관계자는 "기능성쌀 등 품종을 다양화하고 돌, 결흔 등 선별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색다른 상품들을 준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보성군 내일 국악콘서트 '교과서에 나온 재비' 공연

전통음악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보성군은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콘서트 '교과서에 나온 재비' 공연을 연다.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따라 진행된다.

9인의 젊은 남성 연주자들로 구성된 어쿠스틱 앙상블단체인 '재비'(사진)는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전문 예술인을 이르는 순수 우리말을 뜻한다. 국악을 그들만의 특색 있는 연주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공간대를 형성하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우리전통 음악을 흥겨운 사물놀이를 비롯, 국악으로 OST를 감상하는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민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독도(獨島)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독섬'(獨섬)이 고흥 주민에게서 나왔다는 연구가 나왔다.

고흥군이 2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고흥의 중언' '독섬, 석도(石島), 독도(獨島)'라는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은 고흥과 독도가 연결되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재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

"독도 지명은 고흥 방언에서 유래됐다"

고흥군 국회서 우리땅 확인 학술 심포지엄

는 울릉군의 관할 구역에 '석도(石島)'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 나오는 '석도'가 독도의 다른 명칭이라는 것이 정설이지만 일본 측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훈서 우리문화가꾸기회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심포지엄에서 "'석도'와 '독도'가 같은 지명인 것은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고흥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며 "방언은 '돌'을 '독'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독섬'을 '독섬'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또 한

자로 적을 때는 뜻을 따서 '석도(石島)라고 하거나 음을 따서 '독도(獨島)라고 했다는 얘기가. 고흥에는 '독섬'(도화면 덕중리 산322), '석도'(과역면 연동리 산264, 신곡리 산68), '독도'(금산면 오천리 산28)라는 세 가지 지명이 모두 남아 있었다. 원래 모두 '독섬'이었으나 '석도'와 '독도'는 지적도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르게 기록됐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고흥=주각종기자 gju@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병원

- ★ [의료시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요양병원 (2천평 신축부지 허가완료 포함) 지하층 지상5층 토지 19,860㎡ 건물 2,545㎡ 매매 5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의료시설가능함 (현 상가건물임) 지하층 지상7층 토지 995㎡ 건물 2,030㎡ 매매 47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동구 산수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97㎡ 건물 948㎡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양산동 지상5층 토지 475㎡ 건물 1,044㎡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350㎡ 건물 3,943㎡ 매매 5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 100억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생산관리지역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매매가 상담후결정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북구 삼각동 1층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